Hana Infinity

하나은행

2025 August

FX Market Monthly Letter

연구위원 서정훈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yjlee.r@hanafn.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하나은행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금 리

7월 동향

추경 관련 이슈에 상승 시작한 국고채 금리는 7월 금통위 비둘기 색채에 하락 전환. 이어 미국 관세 서한 발송 이후, 주요국가와 협정 타결에 금리 상승세 이어진 양상 속, FOMC 매파 성향 확인 후 추세 이어진 국면

국내 경제 모멘텀 위한 2차 추경 증액, 미 고용의 타이트함 지속 등으로 상승 출발한 국고채 금리는 7월 금통위가 이전 한은 총재 매파성향에도 비둘기적 금리 동결 결정함에 따라 하락 전환한 국면

■ 월초, 한은 총재 금융안정 기조 언급, 2차 추경안 증액 시각과 미 고용 타이트함으로 상승 출발한 금리는 이어, 일본 참의원 선거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영향이 더해지는 국면이었으나, 7월 금통위가 다소 비둘기적 기조를 보임에 따라 하락 추세 전환

- 월 초, 한은 총재, ECB 포럼에서의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안정 중시 매파적 언급과 2차 추경안 증액 시각 및 미 6월 고용이 시장 예상을 웃돎에 따른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상승 출발
- 이어 미 관세 서한 경계감 속 상승 흐름 이어간 국고채 금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영향 추가된 양상이었으나, 7월 금통위가 다소 비둘기적으로 평가되며 하락 전환

미국의 관세 서한 발송 이후,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이슈 속 미 CPI의 관세 영향 및 한은의 하반기 일드커브 상승 언급 등이 금리 상승에 영향 미친 가운데 수급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중반, 캐나다 등 주요국 관세 서한 발송 후, 연준 금리인하 지연 전이 이슈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이후 6월 미 CPI 일부 관세 영향 확인된 가운데, 연준의장 해임 관측과 한은 향후 수익률 곡선 상승 가능성 언급을 반영, 상방 압력 확대되다 수급 요인 반영되며 하락 전환

- 중반, 트럼프의 캐나다 35%, EU, 멕시코 30% 관세 8월 부과 서한 공개에 디스인플레이션 지연 우려 등이 반영되며 국내외 금리 상승. 특히, 6월 CPI에 인플레이션 자극 일부 확인된 측면이 부각
- 이어, 트럼프 연준 의장 해임 관측, 인플레이션 부정적 영향 지속 우려 속 한은의 연말 수익률 곡선이 상승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반영, 상방 압력 확대 후 긍정적 수급 요인 반영되며 하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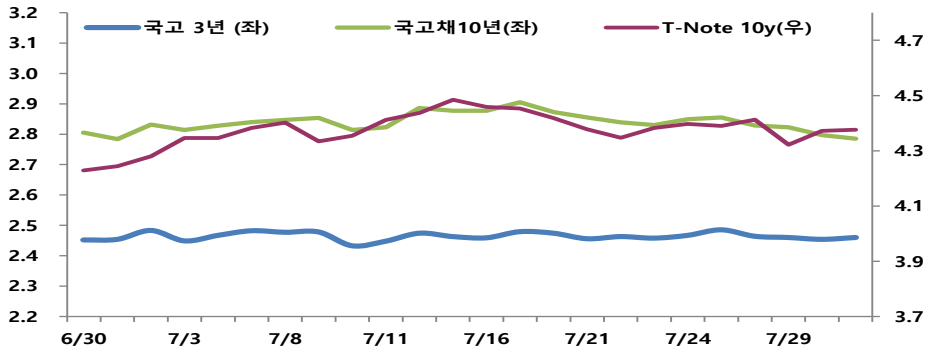
미국과 일본, EU의 관세 협상 합의에 의한 위험선호 속 FOMC 매파 결과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 강보합 시현

■ 후반, 일본, EU 관세 합의 이후 위험 선호 반영 및 국내 2분기 성장률 호조 등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FOMC의 매파적 결과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불확실성 해소 인식 등으로 국고채 금리 강보합세 유지하며 마감

- 후반, 미국의 일본 EU와 전격 관세 합의로 위험선호 영향 반영. 여기에 국내 2분기 성장률 0.6% 호조도 국고채 금리 상승 영향을 미친 가운데 트럼프 연준 압박에도 7월 동결 우세 전망 속 금리 상승
- 이어, FOMC 소수 의견 개진에도 파월 의장 매파 성향 시사 속 한-미간 관세 협상 타결의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위험 선호 영향 일부 반영 등으로 국고채 금리 강보합 상승세 유지하며 마감

7월 평균
국고채(3년): 2.46%
T-Note(10년): 4.38%

주요 시장금리 추이



단위 %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8월 전망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불확실성 해소에도 투자 규모 등 일부 부정적 영향 인식 반영 가능성 상존 속, 한은 금융안정 중시 기조 유지와 연준 매파성 지속 등이 국고채 금리 소폭 상승 압력에 영향 미칠 전망

	1Q25	2Q25	3Q25	4Q25
국고채(3Y, %)	2.55(F)	2.40(F)	2.55(F)	2.50(F)

연준에 대한 트럼프 압박에도 연준은 관세의 물가 전이 영향 등을 고려, 7월 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중단기 관점에서도 다소 매파 성향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연준과 연계된 트럼프 일련의 이벤트에도, 미 경제에 대한 연준 견조함 판단 속, 전월 물가의 관세 영향 전이 추가 고려하며 금리 동결 결정한 가운데, 향후 방향성에 대해 또한 파월의장의 상당히 매파적 회견 내용 등이 연내 국내외 금리 하단 지지할 전망

- 트럼프의 파월 의장 향한 다각도 금리 인하 압박 지속되었음에도, 현재 연준이 보는 미 경제는 다양한 지표로부터 급강하 압력까지 도달하지 않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여기에 6월 CPI 관세 효과 시차적 전이 고려 시, 다소 매파 성향 지속될 가능성 등이 대내외 금리 하단 지지 요인 작용할 전망
- 다만, 이전 FOMC 금리동결 결과와 달리 비둘기 성향의 소수 금리인하 지지 표명이 강하게 나타난 측면은 향후 시장 참가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미국과 관세 협정 무난한 수준에서 타결되며 대외 통상 정책상 불확실성 크게 감소된 형국. 다만, 다소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대미 투자 규모의 향후 국내 경기에의 부정적 영향 배제할 수 없을 전망

■ 7월말 미국과 관세 협상 합의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는 위험 선호 요인으로 판단. 하지만 EU와 일본 대비 다소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직접투자 규모 영향 등이 국내 경기 모멘텀에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측면은 시장의 금리인하 압력 강화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보임

- 전월 후반 일본, EU에 이어 관세 합의에 도달하며 미국과의 무역통상 부문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측면은 위험선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반면, 직접적 대미 투자가 EU나 일본에 비해 절대 규모는 작지만, GDP 대비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경기 모멘텀에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임. 이러한 측면은 시장으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 금리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8월 국고채(3Y) 금리는 2.45%-2.60%

■ 대내적 민생회복 동력 추진에도 IMF 국내 성장률 하향 등이 시장 금리인하 기대 강화하겠지만, 금융안정 추구 한은 기조 지속 및 8월 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계감 등이 국고채 금리 하방 압력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신정부 민생회복 강화 등에도 미 관세 효과에 따른 수출 저하 등으로 회복 경로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상반기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고려한 IMF 국내 성장률 0.8% 하향 조정 등이 시장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 강화로 작용할 측면은 금리 하방 압력 요인으로 예상
- 하지만, 한은 금융안정 중시 기조 가능성과 8월 말 내년 정부 예산안 발표 등에 대한 경계감 속, 동 내용 고려한 한은의 향후 하반기 수익률 곡선 상승 압력 시사 등이 금리 하단 제한 요인으로 판단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불확실성 해소 • 한은 금융안정 중시 기조 유지 가능성 및 연준 신중한 금리인하의 매파 성향 지속	• 신정부 민생 회복 강화에도 IMF의 국내 성장률 하향 속 더딘 국내 경기 모멘텀 기조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달러/원 환율

7월 동향

트럼프 관세 이슈와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에 시장 내 위험회피 심리 강화되며 1,390원대 재진입. 이후 연준 인사의 금리인하 지지에 하락 전환했으나 매파적인 7월 FOMC 결과 반영하며 재차 상승 마감

미 관세 서한 발송 예고 속 품목별 관세 부과 압박이 위험회피 심리 키운 가운데 한은 금융안정 중시 금리 동결 속 향후에 대한 다소 비둘기적 스탠스도 환율 상승에 영향

■ 월초, 미 6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관세 서한 발송 등이 위험 회피에 영향 미친 국면. 여기에 금융안정 중시 한은의 금리 동결도 환율 상승 영향 미친 형국

- 월초, 6월 미국 비농업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속 환율 상승 출발
- 이어, 관세 서한 발송 예고, 품목별 관세 부과 압박으로 위험회피 심리 고조된 국면. 여기에 한은 부동산,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중시 금리 동결에도 향후 비둘기 기조 기대 확대로 환율 상승

트럼프의 관세 이슈, 전쟁 관련 러시아 압박, 연준 파월 압박 등이 위험 회피 영향 미친 가운데, 주요 미 경제 지표 호조에 금리 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환율 상승 추세 지속된 국면

■ 월 중반, 트럼프 관세 서한 발송, 러시아 관세 위협 등이 달러 안전자산 회귀 견인한 가운데, 6월 CPI에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는 실증과 연준 의장 해임 관련 불확실성 등을 반영함에 따라 원화 환율은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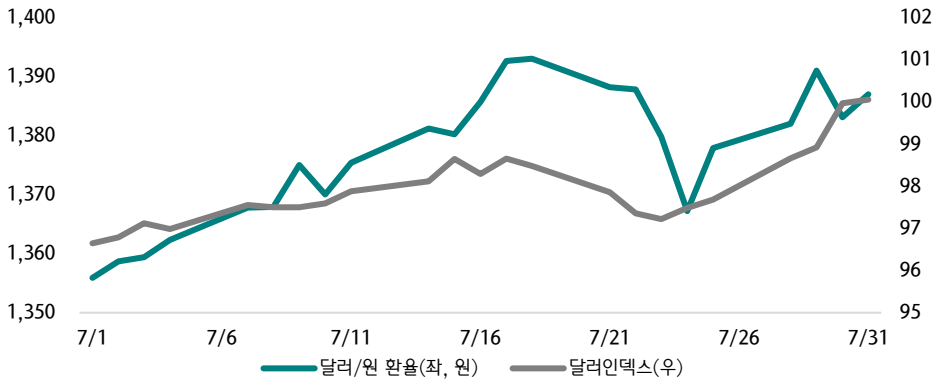
- 중반, 트럼프 관세 서한 발송 달러 매수심리 자극한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관세 위협도 위험 회피에 영향. 여기에 6월 CPI의 관세 물가 자극 현실화 우려에 금리인하 기대 약화된 점도 환율 상승 견인
- 또한, 연준 의장 해임 불확실성이 위험회피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주요 미 경제지표(소매판매, 주간실업수당) 호조에 연준이 금리인하에 여유 가질 수 있다는 평가 등이 반영되며 환율 상승세 지속

연준 인사 지속 금리인하 제기에 달러 약세 흐름 일시 나타났으나, 미 관세 협상이 EU, 일본과 원만히 합의되며 강달러 견인 속 한-미 협상의 경계감 등으로 약세 폭 확대하며 마감

■ 후반, 연준 당국자의 금리 인하 제기 이슈로 하락 추세 전환 했지만, 미국 관세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면서 달러 강세 전환하며 환율 상승세 보인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경계감 반영 등으로 1,400원대 근접하며 마감

- 후반, 연준 당국자의 7월 금리인하 제기 이슈로 달러 약세 흐름 나타나며 원화 강세 시현되었지만, EU, 일본과의 미 관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면서 달러 강세 전환 국면 속 환율 1,390원 상향 전환
- 이후,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에도 매파적인 7월 FOMC 결과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에 연동되며 환율 상승 흐름 이어진 가운데 1,390원 전후 등락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7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76.9
7월말 달러/원 환율
: 1,387.0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8월 전망

연준 금리동결 기조로 인한 글로벌 강달러 나타나는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대미투자 부담 및 대내 경기 부양책 효과 지연에 따른 한국 성장 동력 저하 우려 등이 원화 약세 흐름 자극할 것으로 예상

평균	1Q25	2Q25	3Q25	4Q25
달러/원 환율(원)	1,453	1,401	1,385(F)	1,375(F)

트럼프의 금리인하 압박에도 견조한 경제 상황과 목표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에 연준도 매파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달러 강세 분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압박에도 파월 의장 등 연준 다수 위원들은 견조한 미 경제 및 관세 불확실성 등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고려하여 매파적인 스탠스를 견지할 것으로 보임. 이에 연준 금리인하 재개 시기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 강달러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7월 FOMC에서도 연준 금리동결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파월 의장은 견조한 노동시장과 2%를 웃도는 물가 등을 강조. 이에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가 제한됨에 따라 달러 강세 흐름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다만, 연준 내 금리인하 소수의견 제시되는 등 연준 정책 경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일시적으로 부각될 경우 달러 강세 분위기는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美 정부에 유리한 관세 협상 타결로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경 효과 지연 가능성 및 대미 투자 확대로 인한 국내 투자 제한 등 국내 경제 회복 불확실성은 환율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美 관세 부과 유예 시한 앞두고 일본, EU로부터 유리한 결과 얻어낸 트럼프 정부 협상 결과는 달러에 힘을 실어주는 국면. 한국 또한 주요국과 같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대규모 투자 등 우리 경제 부담 요인 가능성을 고려 시, 원화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미 정부가 일본, EU와의 협상에서 관세율 인하의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얻어내며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측면은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사료
- 한-미 협상에서 상호관세 15% 합의로 불확실성 완화되었으나 대미 투자규모 확대 및 자동차 관세 등 한국 경제 성장 동력에 부정적 영향 미칠 요인이 여전한 점은 원화 약세 자극할 수 있음에 유의

8월 달러/원 환율 1,380~1,410원 예상

■ 한국 '25년 성장률 전망치 0%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신정부 추경의 경제적 효과 지연 가능성과 대미 투자 확대로 인한 국내 투자 여력 제한 등 성장 동력 저하 우려 속 외국인 자금 유입 감소할 경우 원화 약세 압력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신정부 민생회복 지원금 등 추경 집행에도 구조적인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경제 저성장 장기화 우려 속 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여기에 한-미 관세협상 결과, 대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속에 기업들의 국내 투자 제한으로 인한 고용 감소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 자금 유입 감소로 이어질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이 심화할 수 있음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 연준의 매파적 정책 기조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 대미투자 확대 및 추경 경기부양 효과 지연 가능성 등 국내 경제 펀더멘털 우려로 인한 외자 유입 감소	• 연준 매파 위원의 금리인하 의견 제시 등에 따른 연준 정책 전환 기대감

자료: 하나은행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종통화

엔/원 전망

전월 참의원 선거 이후 정치리스크 다소 지속 측면은 엔화 약세 요인. 여기에 對미 관세 협정에 따른 경기 모멘텀의 상대적 미국 우위로 연준 매파 지속 가능성과 BOJ 추가 금리인상 기대 약화 등이 엔화 약보합 지지할 전망

7월 달러/엔 평균환율
: 144.5
7월 엔/원 평균환율
: 944.2

■ (엔화 동향) 견조한 미 경제지표 반영, 엔화 약세 출발 후, 관세 협상 난항에 경기 하방 압력 등으로 약세 지속된 국면. 이어 가계소비 호조에도 트럼프 관세 서한 발송의 달러 강세 지지와, 여기에 관세 영향 고려 등 BOJ 금리인상 지연도 엔화 약세로 작용. 중반, 미국과 관세 협상 불확실성, 미 CPI의 관세 영향 전이 등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지연 속 일본내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엔 약세 지속된 양상. 후반, 참의원 선거 이후 일시 엔화 강세 보였으나, 미국과 일본, EU간 전격 관세 합의가 달러 강세 견인하며 엔화는 약세 흐름 마감

8월 엔/원 예상범위
: 925~940원

■ (엔/원 전망) 전월 후반 쓰나미에 따른 엔화 급강하는 단기에 그칠 전망. 여기에 참의원 선거 이후, 총리 사의 표명 지연에 따른 정치불확실성과 대미 관세 협정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에도 동 결과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집중되며 연준 통화정책 완화 지연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키울 수 있는 측면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하며 엔화 약세에 영향 미칠 전망

- 캄차카반도 강진으로 인한 쓰나미 영향의 엔화 강세는 단기에 그칠 전망. 여기에 참의원 선거 이후, 현 총리의 사의 표명 지연에 따른 정치불확실성은 엔화 약세 견인 요인으로 판단
- 또한, 대미 관세 협정이 타결되며 관세 불확실성 완화되긴 했지만, 결과의 이점 미국 집중 가능성 속에 따른 신중한 BOJ 금리인상 여지도 엔화 약세 영향 미칠 요인. 엔/원 환율 935원 전후 등락 예상

유로/원 전망

ECB 금리 동결 기조 단기 유지 예상은 유로 하단 제한 요인이나, 최근 對미 관세 협정 타결에도, 이에 따른 긍정적 영향 단기 미 경제 집중 가능성 속 연준 통화 긴축 유지 결정 등으로 달러 강세 압력 받으며 소폭 약보합 예상

7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518
8월 유로/원 평균환율
: 1,573.8

■ (유로화 동향) 미 고용지표 강건함 속 영국 재정불안에 의한 달러 강세에서도 미국과 관세 협상 선제적 대응으로 유로 강세 출발. 하지만 트럼프 관세 서한 발송 후, 달러 자산 선호 확대에 유로는 약세 전환. 이어 EU 관세 부과 이슈 강화에 유로 약세 전환 후, 중반 들어, 미국의 우호적 EU와 관세 협상 속 관세 효과의 미CPI 전이 우려 등으로 유로 약세 지속. 후반, ECB 비둘기적 금리 동결 결정과 전격적 미 관세 합의 등에 따른 달러 강세 반영하며 약세 마감

8월 유로/원 예상범위
: 1,585~1,615원

■ (유로/원 전망) 독일 물가 2%초반 진입에도 그간 7회 연속 금리 인하에 대한 향후 경기 점검 가능성에 동결 결정한 점은 유로 약세 제한 요인. 여기에 미국과 관세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영향은 유로 강세 지지 요인으로 판단. 다만, 상대적 미 경제 견조함 속 관세 타결 결과 우위가 미국 단기 집중 가능성 속 달러 강세 견인 등이 유로 강세 제한하며 소폭 약보합 예상

- 유로존 주요국 물가 안정화에도 연속 금리인하에 대한 경기회복 점검 가능성 고려한 금리 동결은 유로 약세 제한할 요인. 또한 최근 관세 협정 타결로 무역 불확실성 걷힌 점도 유로 강세 지지할 전망
- 하지만, 미 경제의 상대적 우위의 견조함 속 관세 협정 타결 효과가 미국에 단기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에 유로 약보합 흐름 예상. 유로/원 환율은 1,585~1,605원 등락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5년 8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미국 고용보고서 미국 상호관세 발표 한 7월 수출/입(YoY +4.3%, +3.3%) S&P 글로벌 제조업 PMI(48.7) 미 6월 건설지출(MoM -0.3%) 7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147k)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74k) 시간당 평균 임금, 실업률(4.1%) S&P 글로벌 제조업 PMI[F] ISM 고용, 신규주문, 제조업, 구매물가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2**
3	**4** 2차 상법 개정안 처리 예정 APEC 디지털· AI 장관 회의(~6) 미 6월 제조업수주(MoM +8.2%) 내구재 주문[F] 유 8월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4.5) 스위스 CPI 상승률 MoM, YoY 미 공장주문 MoM	**5** [채권] 미국 1년물, 3년물 국채 입찰 미국 FMS 2025(~7) 한 7월 CPI(MoM +0.0%, YoY +2.2%) CPI 근원(YoY +2.0%) 미 6월 수출/입(MoM -4.0%, -0.1%), 무역수지 7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F] ISM 서비스, 가격, 고용, 신규주문 중 7월 Caixin 종합, 서비스업 PMI(51.3, 50.6)	**6 지준일**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유 6월 소매판매(MoM -0.7%, YoY +1.8%) 에스엠 , 에이피알 , 산일전기 미 API 원유 재고 변동 미 MBA 모기지 시장지수 독일 공장주문 MoM 인도 RBI 금리 결정 뉴질랜드 실업률, 고용증감 QoQ	**7 BOE 통화정책회의, MSCI 분기리8** BOE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25%로 유지하고 8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MSCI 분기 리뷰 : 지수 리밸런싱은 8/27일 적용 예정 [채권]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한 6월 경상수지, 상품수지 미 6월 도매재고[F]	2025 중국 국제 바이오에너지 전시회(~10) [음식료] FAO 세계 식량가격지수 일 6월 경상수지, 무역수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공개회의 2025 K-Display 산업전시회(~9) 중 경상수지(잠정) 캐나다 7월 실업률 발표	**9**
10	**11** [휴장] 일본(산의 날) RBA 통화정책회의(~12)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85%로 동결 2025 라스베이거스 Ai4(~13) 한 8월 1~10일 수출/입(YoY +9.5%, +1.8%) 일 7월 공작기계 수주[F] 이탈리아 CPI상승률 YoY, MoM	**12 미국 CPI** [음식료] USDA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미국, 중국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미 7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98.6) CPI(MoM +0.3%, YoY +2.7%) CPI 근원(MoM +0.2%, YoY +2.9%) 유 8월 ZEW 서베이 예상(36.1) 일 7월 통화량 M2(YoY +0.9%)	**13** 2025 데이터센터코리아(~14)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15) 2025 인도네시아 수처리 전시회(~15) 한 6월 통화공급 M2(MoM +1.0%) 7월 실업률(2.6%) 미 월간 예산 성명서 일 PPI YoY, MoM 독일 CPI상승률(확정) YoY, MoM	**14 한국 옵션만기일** 한국 옵션만기일 한 7월 수입물가(MoM -0.6%, YoY -6.2%) 수출물가(MoM -1.1%, YoY -4.5%) 미 7월 PPI(MoM +0.0%, YoY +2.3%) PPI 근원(MoM +0.0%, YoY +2.6%) 유 6월 산업생산(MoM +1.7%, YoY +3.7%) 2Q GDP[S](QoQ +0.6%, YoY +1.5%) 고용[P](QoQ +0.2%, YoY +0.7%)	**15 한국 휴장(광복절)** [휴장] 한국(광복절) 미국 옵션만기일 미 7월 소매판매(MoM +0.6%) 소매판매 근원(MoM +0.5%) 수입물가(MoM +0.1%, YoY -0.2%) 수출물가(MoM +0.5%, YoY +2.8%) 광공업생산(MoM +0.3%), 설비가동률 8월 뉴욕주 제조업지수(5.5)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16**
17	**18** 세계경제학자대회 2025(ESWC,~22) 2025 바이오프로세싱 서밋(~21) 2025 WITSA 글로벌 AI 서밋(~21) 미 8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9.3) NAHB 주택시장지수(33) 유 6월 무역수지 일 7월 전국, 도쿄 백화점 판매	**19** 닐슨, 7월 미디어 게이지 월간 보고서 발표 : 미국 TV, 스트리밍 시청 점유율 보고서 AI 리스크 서밋 2025(~20) 2025 중국 상해 섬유 박람회(~21) 미 7월 주택착공건수(MoM +4.6%) 건축허가[P] 유 6월 경상수지	**20** [채권]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 구글, 메이드 바이 구글 : 픽셀 10 시리즈, 픽셀 워치4 등 공개 컬른 게임스컴 2025(~24) 2025 스마트 워크 & 컨택센터 엑스포(~22) 2025 로봇 물류 제조 자동화 산업대전(~22) 유 7월 CPI[F](YoY +2.0%) CPI 근원[F](YoY +2.3%) 일 7월 수출/입(YoY -0.5%, +0.2%), 무역수지	**21** [채권]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한 7월 PPI(YoY +0.5%) 8월 1~20일 수출/입(YoY -2.2%, -4.3%) 미 7월 기존주택매매, 선행지수 8월 S&P글로벌 종합 PMI[P] S&P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PMI[P]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21.5) 유 6월 건설 생산(MoM -1.6%) 8월 HCOB 종합, 제조업, 서비스업 PMI[P] 소비자기대지수[P] 일 8월 지분 은행 종합, 서비스, 제조업 PMI[P]	**22** BNEF, 에너지· 모빌리티 서밋 2025 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25) 일 7월 전국, 국내 CPI 미 Workday, Intuit, Advance Auto Parts 독일 GDP 성장률(확정) YoY, QoQ 캐나다 소매판매 영국 소매판매 MoM, YoY 프랑스 기업 신뢰지수	**23**
24/31 8/31 상아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9/1) :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참여 중 8월 제조업, 비제조업, 종합 PMI	**25** [휴장] 영국(Summer Bank Day) [IT] DRAM 7월 가격 동향 2025 부산 에너지 슈퍼위크(~29) 미 7월 신규주택매매, 건축허가[F]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8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일 6월 선행지수, 동행지수[F] · 8/26 2025 세계 제약,바이오,건강기능 전시회 (~28)	**26** [채권] 미국 2년물 국채 입찰 미국 5년물 국채 입찰 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6월 FHFA 주택가격지수 7월 내구재 주문, 자본재 수주[P] 8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리치몬드 연준 경기현황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일 7월 PPI 서비스	**27 엔비디아 실적 발표** APEC 에너지장관회의(~28) 2025 폐기물, 자원순환산업전(~29)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29) 중 7월 산업생산 미 NVIDIA, NetApp, Cooper, Ambarella 유 Prudential, Eiffage, Sydbank, Ageas · 8/29 미국· E3, 이란 핵 합의(JCPOA) 데드라인 유럽심장학회(ESC 2025)(~9/1)	**28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2.5%로 동결. 집값· 가계부채 우려 등 금융안정 우선 고려 (2) 올해 남은 금통위는 8, 10, 11월이며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결정할 지 관심 미 2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S] 8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유 7월 통화공급 M3 8월 소비자기대지수[F]	**29** [IT] 7월 DRAM 계약가격 발표 NAND FLASH 계약가격 발표 한 7월 광공업생산, 경기순환형 선행지수 미 7월 PCE 물가, 근원 PCE 물가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8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일 7월 실업률, 소매판매 주택착공건수, 광공업생산[P] 8월 소비자기대지수, 도쿄CPI	**30**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하나은행